

#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접수번호	64
------	----

2017. 2. 22.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청원자 : 김경복 외 129명

나. 소개의원 : 강감창(기획경제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17. 2. 16. (64번)

라. 회부일자 : 2017. 2. 16.

마.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7.2. 2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 II. 청원요지

-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1982년에 한울회(63개)와 양지회(65개 점포)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송파구청에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10년에는 101개의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는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점에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지난 40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를 요청함.

## III. 청원소개의원 요지(소개의원 : 강감창 의원)

- 1978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등지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송파구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노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와 통제 아래 지난 40년 간 운영되어 왔음.
-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노점상가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시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점상가의 존치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석촌시장의 노점상가는 1908년 초반 가락시영아파트의 입주와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락시영아파트담장과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에 가설물형태의 고정노점들로 약 570m에 걸쳐 조성되어 있음.

<석촌시장 노점상가 주변 평면도>



- 2015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전과 아파트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현재 137개소 중 22개소가 휴·폐업하여 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115개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

<석촌시장 노점상가 영업 현황>

총계	의류	공산품	식품류(62.5%)						기타
			채소·과일	잡곡·쌀	생선	포장마차	음식(분식)	반찬	
115	16	12	19	5	7	15	9	17	15
100%	13.9%	10.5%	16.5%	4.3%	6%	13.1%	7.8%	14.8%	13.1%

- 한편, 가락시영아파트는 2018년 하반기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송파구청은 아파트 주민의 입주에 앞서 가락시영아파트와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를 확장하고 주민편의시설로 송파 책박물관, 근린공원, 초·중등학교를 조성할 계획임.
- 현재 가락시영아파트와 석촌시장 사이의 도로 폭은 약 7~8m이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으로부터 도로주변 토지(폭 2m)를 기부채납 받고 노점상가(약 2.5m 점유)를 정비하여 폭 10m의 도로로 확장할 계획임.

- 송파구청은 석촌시장 노점상가가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도로 확대 공사 구간에 저촉되고 있어 정비가 불가피하며 100여개가 넘는 많은 점포수로 인하여 대체부지 마련 등 지원대책의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노점은 그동안 보행환경의 침해와 불법적 영업 등을 이유로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의 잠재력 등에 주목하여 노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노점을 ‘거리가게’라고 명칭을 바꾸고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통하여 거리가게와 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동작구와 함께 노량진 컵밥노점들의 위치를 보행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전하고 컵밥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노점을 단순 철거대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석촌시장의 노점상가 중 저소득자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청원은 의미가 있으며 본 청원의 결과를 송파구청에 이송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의견서 : 별첨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	
청원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가락5길 11-203
	성명	김경복  외/ 12904
소개의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감창 	
소개년월일	2017. 2.	
<p><u>소개의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철거대상이 아니라 존치하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삶의 터전입니다.</li> <li>○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지난 40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1982년에 한울회(63개)와 양지회(65개 점포)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석촌시장 상인회가 출범하였고, 1992년에는 송파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li> <li>○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도와 전기를 공급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에서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리와 통제 아래 상행위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송파구청으로부터 101개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li> <li>○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송파구청에서는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4억 3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점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li> <li>○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노점상을 보호하고 상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노점)은 7,718개소 중 1,839개소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li> <li>○ 석촌시장과 유사한 상황의 시장과 상인들이 보호받아온 사례도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강동구의 5개 전통시장 노점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합법적인 상점가로 관리하고 있는 강동구의 사례, 노량진 컵밥거리의 노점을 부스형 가게로 전환함으로써 특색있는 노점군으로 성장시키고 양성화한 동작구의 사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이르는 650미터 구간의 노점을 푸드 트럭과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시킨 서초구의 사례 등이 있습니다.</li> <li>○ 이에 본 의원은 따뜻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제일의 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삶의 터전과 서민의 희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li> </ul>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64	접수연월일	2017. 2.16
청원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가락5길 11-203	
	성명	김경복 외 129명	
소개의원	강감창	소속위원회	기획경제
건명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기획경제		
<p>○ 석촌시장 노점상가는 1982년에 한울회(63개)와 양지회(65개 점포)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송파구청에 노점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2010년에는 101개의 상점가와 133개 노점을 대상으로 인정시장 등록을 마친후 오늘에 이르고 있음</p> <p>이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는 ‘석촌시장 인접 집단노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4억3천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점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음</p> <p>이에 지난 40년 가까이 저소득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반대를 요청함</p>			